

너희가 집에서 가족과 살면서도 자유로이 머무는 방법

오늘 밥다다는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그의 자녀들 중에서도 각별히, 아버지를 알고 그에게서 각자의 유산을 차지하는, 수백만 중에서 한 손으로 꼽을 만큼 적은 수의 특별한 그룹을 보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그룹이겠느냐? 오늘 그는 가족들과 집에서 사는 자녀들을 특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가족 전체의 가정들도 역시 지켜봤다. 그는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장소들을 보았다. 가정들을 지켜보면서 바바는 또 불순한 원소들과 역경들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왕국들에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도 역시 보았다. 이것을 보면서 바바는 또 일부 자녀들이 가족들과 집에서 살면서도 어떻게 자유로이 머무는지, 그들의 경이로움도 역시 보았다. 자기의 자유와 가족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자들은 아주 훌륭하고 고귀한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의 동반자이며 초연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행하고, 세상 앞에서 실질적인 예가 되었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보호의 덮개 아래 한결같이 머물기 때문에 마야가 일으키는 어떤 유형의 전쟁에서도, 또 마야의 어떤 유형의 유인으로부터도 변함없이 안전하게 머문다.

그렇게 초연하고 독특한 자녀들을 볼 때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다. 바바는 또 집에서 가족들과 사는 일부 다른 자녀들도 역시 본다. 자녀들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주님은 항상 그들에 대해 마음이 흡족하다. 사랑하면서도 초연히 지내는 것의 비밀을 알므로 그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에 대해 행복하며 자기 가족들도 계속 행복하게 한다. 밥다다도 역시 그들에 대해 늘 기쁘다. 라즈윅트(모든 비밀을 다 이해하는 자)하면서 끊임없이 그들 자신과 모든 이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남들을 위해서든 조연자(카지)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조연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나 사건은 아예 없다. 너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하다면 그럴 때 제3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이다. 너희가 자기의 산스카르들에 대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는가, 아닌가? 이 일이 어느 정도로나 일어나야겠는가?” 라며 제 자신과 계속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 다른 이를 조연자로 삼아야 한다. 일부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일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결정한다면 모든 것이 1초 안에 끝날 것이고 조연자도, 판사나 변호사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가족에 관한 법 중 하나는 만일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그 소식이 아이들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는 점이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것을 합칠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는 모든 것을 그들의 내면에 수용할 것이다. 상황에 대한 소식이 제3자의 귀에 들어가면 그것은 틀림없이 퍼질 테고, 뭔가가 더 많이 퍼질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물리적인 화재는 불이 번지는 정도만큼 피해를 끼친다. 이 모든 사소한 일들은 갖가지 악덕의 불들과 같다. 불은 당장 그 즉석에서 꺼서 번지도 못 놔두지 않는다. 너희의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직 너희와 아버지만 알게 해야 하고, 비록 가깝고 심지어는 가족이라 해도 제3자에게는 그 일이 알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행복해야 한다. 기분이 언짢아지는(나라즈) 것은 비밀(라즈)을 모르는 것과도 같다. 너희가 제 자신이나 남들에 대해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은 너희가 지식의 이런저런 비밀을 놓쳐서 그걸 모를 때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소한 작은 일도 큰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뭘가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은 너희의 가정사를 외부에 퍼뜨린다는 뜻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큼직한 법정 사건들은 모두 신문 지상에 실린다. 여기서도 역시 그런 일들은 브라민 가족의 신문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어째서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저 너희와 아버지 사이뿐이고, 제3자는 어느 누구도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한다. 어떤 자녀들이 하는 한 가지 생각은 바바에게 도달된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무체인데 아내는 육신을 가진 탓에 서로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마음에서 우러난 대화가 바바에게 도달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즉 너희가 아무런 반응을 받지 못하는 때도 더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조연자를 가져야 한다. 어쨌든 너희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닌 남편을 찾았다. 너희들이 그가 어떤 형태를 가지기를 원하든 그는 1초 이내에 너희가 원하는 그 형태로 너희 앞에 현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처럼 너희들도 역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1초에 너희가 날도록 만들어서 미묘한 지역으로 데려갈 수 있다. 아버지가 비물질세계에서 미묘한 세계로 들어오니, 너희들도 역시 물질세계에서 미묘한 세계로 갈 수 있다. 최소한 만남의 장소까지는 가라! 그 장소는 또 아름다워야 한다. 서틀 리전, 천사의 지역이 바로 만남의 장소다. 너희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장소도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희가 저지르는 유일한 실수는 진흙을 가지고서 그리로 가는 것이다. 이 몸은 진흙이다. 너희들이 각자 진흙을 가지고 일해야 할 때는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 만남의 시간에는 너희 몸에 대한 의식을 버리고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 양쪽의 옷이 같아야 한다. 무체인 아버지는 천사의 의상을 택한다, 즉 밥다다는 함께 천사와 무체가 된다. 너희들도 역시 천사의 옷을 입고 이리로 와야 한다. 너희가 빛나는 옷을 입어야만 그때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옷을 입는 방법을 아느냐? 이 옷을 입자마자 너희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옷은 마야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방수되어 있고 내화(耐火)가 되어 있다. 이것은 또 이 낡은 세상의 태도와 파동들도 잘 견디게끔 만들어졌다. 너희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받고서도 약속이 있을 때 그 옷을 입지 않는구나! 낡은 옷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너희가 빛의 지역에 있을 때 양쪽이 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 참으로 보기 좋다. 한쪽은 낡은 옷을 입고 다른 쪽은 빛나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낡은 파동들이 개입되고, 이런 이유로 너희는 마음을 터놓은 대화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 그것은 너희가 남들에게서 일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너희가 신호만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정도로 가깝고 사랑이 많아야 마땅하다. 신호보다도 더 미묘하게 그저 생각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마땅하다. 이것은 그 정도로 지극한 사랑의 관계다! 그런데 왜 너희들 사이에 제3자가 들어오도록 허용하느냐? 제3자가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너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뜻이다. 물론 너희는 마음을 터놓은 대화가 어땠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는 너희가 서로 협조하고 경험도 서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제3자에게 마음속까지 털어놓으며 그 사람을 너희의 조언자로 삼지는 말아야 된다. 마치 무슨 사건이라도 난 듯이 얘기하지는 마라. 그러니 조언자를 보내고 너희 당사자들끼리 화해하고 행복해져라. 배우자인 분을 너희가 선택했는데 왜 제3자가 너희들 사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느냐? 너희들 사이에 누군가 남이 들어오게 허용하면 결국 너희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끝난다. 너희의 남편인 분이 너희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변화의 과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도 너희는 파멸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고 묻는구나! 아내인 너희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파멸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파멸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느냐? 옷을 갈아입는 방법조차 모르는데 너희가 어찌 세계를 바꾸겠느냐? 앗차. 가정을 가진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때에 말해주겠다. 오늘 그는 너희들 마음속의 가정사에 관해서 말해주었다.

끊임없이 라즈육트하고 욱티육트하며 항상 가까운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변함없이 행복하고 남들도 늘 행복하게 해주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만남을 축하하는 자들에게, 초연한 관찰자이며 아버지의 동반자인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선생들에게 이르신 밥다다의 고귀한 말씀.

선생들은 아버지처럼 가장 고귀한 영혼들이다. 선생들은 해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심지어 학생들도 봉사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 선생들은 특별히 뭘 해야겠느냐? 이제는 너희들의 수가 많은데도 너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모든 이가 말할 만한, 그런 집회를 만들어라. 여기 너희들에게 디디와 다디, 둘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는 그들을 하나로 경험하고 이것이 모든 이에게 대단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이 둘이면서도 서로를 비슷하게 존중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다른 모든 이에게 마치 한 사람처럼 보인다. 너희의 수가 많지만, 너희들도 역시 모두 한 분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은 너희들 모두가 똑같은 얘기들을 한다고, 즉 너희들 중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모든 이가 다 같이 얘기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은 옷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입는다. 너희들이 사용하는 말도 모두 지식의 같은 요점들이다. 비록 지식을 얘기하는 방식은 서로 약간씩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같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모든 이가 너희 모두가 많지 않으며 하나라고(일치되어 있다고) 얘기하도록 그런 그룹을 만들어

야 한다. 이것이 특별하지 않느냐? 누군가 모든 이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 술선해서 이 계획을 주도하는 자가 아르주나가 된다. 누가 아르주나가 되려느냐? 아르주나가 되는 자들은 1등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긴 하되 너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느냐? 너희는 서로 협조하며 서로의 약점은 보지 말고 특기를 봐야 한다. 약점에 대한 얘기는 귀담아듣지 마라. 너희는 이 훈련을 매우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를 다 보면서 그 영혼들의 약점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협조해라. 너희가 그런 영혼들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들에 대해 자비의 느낌을 가져야 한다. 슬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 너희가 자비를 느끼듯이 나약함에 대해서도 역시 자비로워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자비로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비록 너희의 수가 많아도 너희는 일치단결될 것이다. 바깥세상에서 지각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뭘 하느냐?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포용한다. 그들은 서로 협조함으로써 가족의 이름을 영광되게 빛낸다. 그들은 가족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가 가득해지게 만들 것이다. 이것도 역시 가족이다. 만일 자기들의 산스카르에 영향받은 자들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들에게 협조하고 그들을 격려해줘라.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어서 그들을 너희 동반자로 만들어라. 그러면 비록 너희들의 수가 많지만 너희 모두가 마치 하나로 뭉친 듯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냐? 너희는 축복을 허락하는 형상들이므로 너희들처럼 그렇게 축복 받은 영혼들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약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뭘 하겠느냐? 그런 “아트믹”(영혼의식의)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시범으로 본보기를 보여라. 이것이 선생인 너희들의 의무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약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위로자로서 너희 마음을 다독여주듯이, 너희 선생들도 역시 아버지와 같아져야 한다. 어느 누구의 약점도 보지 마라! 그들의 약점을 너희 마음에 들여놓지 말고 마음의 위로자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다독여줘라. 그러면 모든 이가 너희를 칭송하여 노래 부를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동반자든 너희의 백성이든 그들 모두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다. 너희가 한결같이 매우 사랑이 많으며 협조하는 영혼이라는 축복, 너희가 그들 마음을 위안해주는 데 있어서 마음의 위로자 아버지와 대등한 이라는 축복이 그들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해야 한다. 오직 그제야 너희가 자격 있는 선생이라고 불릴 것이다. 만일 선생들이 계속해서 모든 이의 결함만 본다면 학생들과 선생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선생은 아버지의 가디에 앉혀진 자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가디에 그와 함께 앉혀져 있지 않느냐? 전체 모든 이들 중에서 동반자가 제일 가까이 앉혀지지 않겠느냐? 선생들은 가디에 앉혀질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 그런 경이로움을 행해라! 누가 선생이라고 불려야 할지 이제는 이해하느냐? 이것에서 누구든 상을 차지할 수 있다. 선생은 결코 어느 누구의 약점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선생들은 오직 특기들에 관해서만 말해야 된다. 선생이란 용기 없는 자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대등한 자라는 뜻이다. 누가 선생이라고 불리는지 이해되느냐? 확장이 잘 일어났으니 이제는 집회의 본질을 창조해라.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에게서 변함없이 어떤 형태를 보느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서 완전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는데 왜냐하면 비록 너희가 오늘 동요되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흔들림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러했고 동일한 그 배역을 다시 연기해서 완전해져야 한다. 이 동요는 중간에만 올 뿐, 처음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 거기에서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간 시기만의 문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 각자를 변함없이 고귀한 너희의 형태로 본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뭘 해야겠느냐? 자녀들은 항상 자기의 고귀한 형태를 봐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결코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으로 여러 생 동안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63생 동안 너희는 아래로 내려오는 경험을 해왔다. 내려오는 동안에 너희는 피로해졌지 않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좀 더 맛보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 너희들의 내리막은 끝났다. 오직 합류시대만이 상승의 시대다. 그 다음에는 너희의 내리막이 시작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짧은 시간에 계속 오르락내리락한다면 언제 위로 올라가겠느냐? 남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지금 아니면 영영 안 됩니다!” 라 하니, 너희 스스로에게도 같은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만일 너희가 지금 오르지 않는다면 너희의 내리막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상승의 단계를 가지고 진정으로 즐겨라. 이 삶에는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미래의 삶에서는 너희가 모든 성취를 다 가지는 것과 아무런 성취도 못 가지는 것의 대조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때에는 너희가 양쪽을 다 알고 있어서 지금 그 즐거움이 경험된다. 브라민이 된다는 것은 모든 욕구를 끝낸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모든 보물을 다 주었고 또한 보물창고의 열쇠까지 주었거늘 너희가 어째서 아직도 뭔가를 달라고 청하느냐? 아버지는 너희가 그걸 달라고 청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아버지는 너희가 뭔가를 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 세계의 주인의 아이가 뭔가를 달라고 청한다면 그것이 옳아 보이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그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젠 뭘 하겠느냐? 너희가 세계의 주인의 자녀들이라는 도취감을 한결같이 유지하면 어떤 것을 구하는 너희의 부탁이 멈출 것이다.

자, 이제는 마야의 정복자라는 깃발을 모든 곳에 다 띄워라. 이 깃발이 높이 날리고 있으면 다른 깃발들은 모두 다 내려질 것이다. 너희는 지금 깃발의 줄을 당기고 있다. 그러면 깃발이 높이 날 것이고 계시의 꽃들이 모든 이의 머리 위로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서로를 협조적이게 만들고 마야의 정복자인 과동을 펴뜨려라. 너희들의 요새를 튼튼하게 만들어라. 마야가 감히 들어올 용기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희의 요새를 난공불락으로 만들어라. 만일 마야가 누군가에게 온다면 먼 데서부터 쫓아버려라.

축 복: 고귀한 보상을 받고, 합류시대의 모든 성취를 너희 의식 속에 간직함으로써 상승단계를 경험해라.

신을 만나고 신의 지식을 만나는 특별함은 불멸하는 성취들을 경험하는 데 있다. 합류시대는 노력하는 삶, 황금시대는 보상의 삶인 것이 아니다. 합류시대의 특별함은 너희가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천 걸음을 보상으로 받는 데 있다. 이처럼 이것은 단지 노력하는 삶이기에 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보상의 삶이다. 이 형태를 끊임없이 너희 앞에 두어라. 보상을 보면 너희가 상승단계를 쉽게 경험할 것이다. “성취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나는 다 성취했네” 라는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너희가 질식하는 것과 고개를 끄덕이며 조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슬로건: 브라민들의 호흡은 용기인데 그것은 가장 힘든 난제마저 쉽게 만든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